

지역 소식통

부안군, 3곳 명상숲 조성

부안군은 백산초등학교와 우덕초등학교, 부안여자고등학교 등 관내 3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상숲은 지난해 11월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3개 학교를 선정 후 학교당 6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학교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 및 담장경계 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만들었다.

특히 학교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물을 식재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백산초등학교에는 인라인트랙을 설치했으며 우덕초등학교는 담장경계 경관 개선, 부안여자고등학교는 아이티에이블을 설치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부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1개 학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3개 학교로 확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정읍시, 총상금 200만원

정읍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 개선하기 위해 8월10일까지 약 50일간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6개 분야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이 가능하며,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0년 정읍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성과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모두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 총 200만원(최우수 1건 70만원, 우수 2건 각30만원, 장려 7건 각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명사십리 사구보전 탄력

해수부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총 376억원 투입

모래·침식방지 울타리·도로철거·우회도로 신설 등

끝없이 펼쳐진 은빛 모래밭 고창군 장호에서 구시포까지 이어지는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변의 체계적인 관리가 추진된다.

고창군은 최근 확정·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에 명사십리사구가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변화하는 연안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연안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고창군 장호에서 구시포까지 이어지는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변의 체계적인 관리가 추진된다.

앞서 군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역환경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3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고창군 명사십리사구 총사업비는 376억원이다. 모래(30만㎡), 침식방지울타리(4500m), 도로철거(4000m), 우회도로신설(3000m)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명사십리 해변은 천혜의 사구지역이나, 배후 해안도로 건설로 모래의 이동성 차단과 산림청 사방사업으로 설치한 호안으로 인해 사구가 침식되고 있다.

라남근 군 해양수산과장은 "침식완충지 확보를 통한 천연 사구의 보전과 연안보호로 군민들이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올해 유채 840ha를 심어 지난 4~5월 만개한 유채꽃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였지만 각종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관광소득을 올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고창군 울 첫 친환경 유채 수확 성공

공음면 청매골 단지... 관광자원·소득작물 연계 기대감

고창군이 올해 유채 840ha를 심어 지난 4~5월 만개한 유채꽃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였지만 올 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관광소득을 올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채 경관지구 중 공음면 청매골 단지(박종환 농가)에서 친환경유채 시범단지 24ha를 조성해 친환경 유채 5톤을 첫 수확해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군은 올해 첫 친환경 유채 수확 성공을 계기로 낮은 모내기를 실시한 후 가을철 벼 수확에 지장이 없으면 친환경 인증단지 위주로 유채를 확대 재배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유채 경관지구를 만

들어 봄에는 유채꽃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양의 지력 높이를 추진했다.

이번 친환경유채 수확 시범단지 성공으로 꽃이 진 후에는 유채를 수확해 유채유 가공과 조사료 등에 따른 추가 소득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국 최고의 경관농업 1번지 고창군 전 지역에 특색 있는 아름다운 유채밭을 조성해 관광자원과 소득작물로 연계 시키겠다"며 "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곰소염전 웹툰 형식 대형 안내판 큰 인기

부안군·전북도, 새로운 형식·참신한 내용으로 제작 눈길

부안군은 전북도(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전국적인 소금 명산지인 곰소염전 입구에 웹툰 형식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곰소염전은 곰소만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미세알이 풍부한 고품질 천일염이 생산되는 곳으로 그동안 국내 유명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곰소염전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이 없어 방문객들이 곰소염전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지적

과 함께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과 전북도는 곰소염전의 특징과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도 어촌특화개발사업으로 안내판 설치를 선정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섭외해 기존의 통상적인 안내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과 참신한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제작했다.

2m 크기로 세워진 안내판에는 곰소소금에 관한 이야기와 이곳 소금민의 독특한 생산과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웹툰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곰소염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안내판의 내용을 보면서 바로 눈앞에 펼쳐진 염전의 풍광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형 안내판 설치로 곰소소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판매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많은 관광객이 곰소염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폐렴구균 무료접종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정읍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폐렴구균 접종률이 감소하고 보건소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폐렴구균은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과 뇌수

막염, 심내막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균혈증의 경우는 사망률 80%, 수막염의 경우는 사망률 80%까지 이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와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친절공무원에 김정민·박상현 주무관

정읍시가 2020 상반기 친절공무원에 ▲농업정책과 김정민(농업7급) ▲세정과 박상현(세무7급)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타의 모범이 된 직원을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친절공무원 선정은 시민과 동료로부터 시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어 직원 대상 무기명 전화조사와 설문조사, 시정조정위원회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난 19일 최종 선정했다.

김정민 주무관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방법, 영농철차 상담 등 민원인에 친절할 응대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친절 정읍'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상현 주무관은 자동차세 등 세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항상 밝은 미소로 민원인의 고충을 민원인 입장에서



김정민

박상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친절하게 성실성의껏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이다. 시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두 명의 주무관에게 근무실적 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지역에 친절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시민과 직원으로부터 칭찬받은 공무원들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